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제 연구

—「야행」과 「보통 여자」를 중심으로—

이은영*

|| 차례 ||

1. 서론
2.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 담론
3.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제
 - 3.1 성 담론과 모성 담론이 혼재된 여성 주제
 - 3.2 성 담론과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된 여성 주제
4. 「야행」과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의미

【국문초록】

본고는 김승옥의 소설 중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야행」과 「보통 여자」를 분석함으로써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주체가 ‘근대화’라고 하는 큰 상징적 질서에서 적절한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버려야 할 대상이자 끊임없이 남성 주체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타자로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야행」과 「보통 여자」에서 여성 인물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주체이자, 1960년대의 여성 담론을 내재한 주체로 형상화되었다. 즉 「야행」에 나타난 여성 주체는 60년대의 성혁명이라 불리던 자유로운 ‘성 담론’과 ‘모성의 사회화’라고 하여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하던 ‘모성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 또한 ‘성 담론’과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하는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되었다.

이와 같이 「야행」과 「보통 여자」에서 1960년대의 여성 담론을 내재한 여성 주체에 대한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연구는 먼저 김승옥 초기 소설에서 남성의 개인·주체·자아에 대한 관심이 그의 후기 소설에서 여성의 개인·주체·자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서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남성 주체의 타자였던 여성이 당당히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 주체가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일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진실한 인간관계와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여성 주체, 야행(夜行), 보통 여자, 근대화 프로젝트, 여성 담론, 성 담론, 모성 담론, 현모양처 담론, 혼재, 사회에 대한 관심의 확대

1. 서론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감수성의 혁명’¹⁾이라는 수식어로 대변된다. 그러나 그의 후기 소설들에 대한 평가는 초기 소설에 대한 평가와는 너무나 상반된다. 즉, 조진기는 『생명연습』(1962)으로 비롯되는 김승옥의 문학은 『무진기행』(1964)을 거쳐 『서울, 1964년 겨울』(1965)을 정점으로, 『야행』(1969), 『서울의 달빛 0장』(1977)으로 60년대 대표적 작가로서 명맥을 유지하는 사이에 장편소설 『내가 훔친 여름』(1967), 『60년대식』(1968)으로 확대되는 듯하지만, 『보통 여자』(1969), 『강변 부인』(1977)에 이르러 퇴폐적 일상으로 추락하고 있다²⁾고 평가한다. 이는 정현기가 『보통여자』와 『강변 부인』은 김승옥다운 면모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난잡하고 음란한 성희에 가득찬’ 세계만을 보여주고 있다³⁾는 언급과도 일치한다. 이는 김승옥의 후기 소설에 대한 대중화, 통속화 경향에 대한 평가

1)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전집1』, 민음사, 1995.

2) 조진기, 『불안한 감수성과 퇴폐적 일상- 김승옥 장편소설의 통속성을 중심으로』, 『작가연구』 제6호, 새미, 1998, 61-62쪽.

3) 정현기, 『1960년대적 삶』, 『한국문학의 사회사적 의미』, 문예출판사, 1986, 253쪽.

들과 연관된다.

그런데 『보통 여자』와 함께 자주 논의되는 『강변 부인』은 『보통 여자』보다 8년이나 후대의 작품으로, 이 시기는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 등 이른바 70년대 들어 부각된 신진 작가들의 대중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던 시대였다는 점. 그리고 김승옥 스스로 『강변 부인』에 관해 언급한 “흥미위주의 대중소설이며 철저히 오락성을 추구하려 했던 소설”⁴⁾이란 점을 받아들이는다면 『강변부인』은 오히려 초기소설의 분석기준과는 철저히 다른 대중소설이라는 잣대로써 분석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통 여자』역시 『강변 부인』과 함께 묶어서 흥미위주의 대중소설로만 분석하기보다는 동시대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야행』과 연구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즉 『보통 여자』는 『야행』과 함께 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성의 주체 문제로 접근할 때 그 의미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먼저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김승옥의 초기소설에서 남성의 개인·주체·자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후기 소설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개인·주체·자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글은 초기소설에서 ‘타자’였던 여성이 후기소설로 넘어오면서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된 동인(動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김승옥의 전기소설은 ‘감수성의 혁명’으로, 후기소설은 ‘대중적·통속적 소설’로 평가하며 그의 전·후기 소설의 작가의식을 단절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 또한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승옥의 소설 중 여성이 주체로 등장하는 『야행』과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4) 김승옥, 『나와 소설쓰기』,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11쪽.

주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

김승옥의 1960년대 소설에는 당시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이라는 배경 하에서 여성에 대한 작가의식이 면면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야행』과 『보통 여자』는 60년대의 성혁명이라 불리던 자유로운 성 담론과 국가에서 국가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하는 담론인 현모양처담론이 혼재되어 있는 작품이다.

근대화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던 196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는 시기로, 남성들은 공적 영역 진출을 통해 물질적 기반을 제공받고 사적 영역에서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졌다.⁵⁾ 국가는 여성 또한 근대화 프로젝트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높은 출산력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계획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통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해 통제된, 가족계획의 공식화는 결혼한 여자의 몸이 갖는 쾌락적 성을 재생산과 분리시켜, 성을 여성의 삶의 한 양식으로 만드는 효과 또한 창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 계획 사업은 여성의 몸의 경험을 결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하는 담론이기도 했다.⁶⁾ 따라서 국가는 여성들에게 기본적으로 모성을 강조하면서

5) 신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 30쪽.

6)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가을호(통권8호) 삼인, 1999, 93~96쪽.

지식인을 주요 독자로 설정했던 『사상계』가 1960년 8월에 특집으로 ‘20세기와 성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윤택하려고 하였지만,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모성을 단지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한편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주체가 ‘근대화’라고 하는 큰 상징적 질서에서 적절한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버려야 할 대상

(性)’을 마련한 것이라든지 당시 주요 여성지였던 『여원』(1965년 7월호)에서 마담 보파리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에로스의 반역’을 실은 것 등으로 볼 때, 국가가 가족계획의 공식화를 통해서 여성의 몸의 성적 쾌락을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에서 성 담론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모성에 대한 담론으로 국한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사상계』의 특집호인 <20세기와 성(性)>에서 이만갑은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라는 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녀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현대인들의 남녀교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전의 성행위는 정신의 안정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 배우자의 신의와 애정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지양하고 있지만, 결혼 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훨씬 과격적인 주장을 한다. 즉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체제’는 애정의 교통규칙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자식이 없고 부부가 협의해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다지 나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 등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히 과격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이만갑,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 『사상계』 1960, 8, 220-224쪽.)

그리고 이동식의 「성욕=심리현상의 동인」이란 글에서는 20세기를 ‘성해방의 시대’라고 보면서 현대인은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성욕의 자극과 만족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도피적인 경향에 편승한 상업주의는 성을 상품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동식, 「성욕=심리현상의 동인」, 『사상계』 1960, 8, 226-231쪽.)

또한 여석기의 「새로운 성의 신화」에서는 D. H. 로오렌스의 『채터레이부인의 애인』을 중요한 사례로 들면서, ‘프로이트 주의’라는 새로운 심리학이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이 스트립쇼적 풍속 문학이 갖는 천박한 성생활 또는 성행위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행위의 내면의식의 비논리적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여석기, 「새로운 성의 신화」, 『사상계』 1960, 8, 232-237쪽.)

또한 60년대의 대표적인 여성잡지 『여원』에 실린 이철범의 「에로스의 반역」이란 글 역시, 현대를 ‘에로스의 반역(反逆)’ 즉 성의 자유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에로스의 반역은 무한한 자유와 기성도덕을 무참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철범, 「에로스의 반역」, 『여원』 1965, 7, 195쪽.)

이자 끊임없이 남성 주체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타자로서 형상화되었다.⁷⁾ 그러나 『야행』과 『보통 여자』에서 여성 인물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주체이자, 1960년대의 여성 담론을 내재한 주체로 형상화되었다. 즉 『야행』에 나타난 여성 주체는 60년대의 성혁명이라 불리던 자유로운 ‘성 담론’과 ‘모성의 사회화’라고 하여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하던 ‘모성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 또한 ‘성 담론’과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하는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되었다.

3.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김승옥은 자신의 소설집에서 그의 작품들을 60년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집결시키고 있음을 고백했다.⁸⁾ 그렇다면 동일한 60년대라는 시대적 조명을 받고 있지만, 그의 초기 소설에서 남성주체의 타자로서 등장하던 여성인물들이 당당히 주체로서 등장하는 『야행』이나 『보통여자』의 카테고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들 김승옥 소설에는 1960년대의 여성 담론이 하나의 카테고리라 할 수 있다.

7) 이은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주체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0, 31-48쪽.

8)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60년대 작가’라는 별칭이 붙어 다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보니 이 카테고리야말로 60년대 상황인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중략) 60년대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설들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내가 ‘60년대 작가’임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7쪽)

3.1 성 담론과 모성 담론이 혼재된 여성 주체

『야행』은 김승옥이 단편집 『서울 1964년 겨울』(1966) 이후 오랜만에 발표한 단편으로 여성 인물이 최초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라는 점과 더욱이 이 여성 인물의 성적 일탈이 그의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의 유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평자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한 작품이다. 즉 『야행』의 주인공 현주의 성적 일탈 행위는 『생명연습』의 정숙이나 『건』의 윤희 누나, 그리고 『환상수첩』의 선애나 『무진기행』의 인숙의 성의 유린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남성 주체는 ‘근대화’라고 하는 큰 상징적 질서에 적절한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성(性)을 유린하는데, 이는 주로 처녀성 상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여성 인물의 성(性)은 주로 남성 인물의 자아성숙과 입사의 계기로써 작용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여성의 성적 유린이 남성 주체의 강탈에 의한 강제적 행위였다면, <야행>에서 현주의 성적 일탈은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행위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은행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중산층 여성인 현주는 왜 야행(夜行)을 감행했을까?

『야행』의 주인공 현주는 2년 동안 같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 부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부부로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주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주는 평범한 행복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좀 더 저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버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직장에서 남남처럼 행동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극이 탄로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불안한 습관이 되어버린 그 연극이 8월 초순의 어느 날, 낯선 사내의 강간으로 속임수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된다.

백낙청은 이 낯선 사내의 존재를 이름도 주소도 모를 ‘초남아’(超男兒)로 명명하면서, 소시민적 현실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을 참다운 시민의식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구세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야행」의 여주인공의 비틀거림이 제시하는 길은 일시적 도피의 길이요 시민의식 파산의 길이며 새로운 노예화의 길⁹⁾이라고 혹평한다. 그러나 현주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봉변으로 돌려버리고 싶었던 그 사건이 시일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내부에 자리잡혀가게 되면서, 낯선 남자 또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사건이 생긴 데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불량배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날 그 육교 위에서 손목을 잡힌 사람은 그 불량배였는지 자기였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자기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었다. 마침 한 사람이 자기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자기는 그 사람의 손목을 붙잡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를 데려다주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더 나은 곳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곳’이 아닌 것만은 틀림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⁰⁾(줄표-인용자)

현주는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강간을 단순한 봉변으로 돌려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그 사건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이 낯선 사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현주가 낯선 남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현주는 경제적 여유라는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직장에서 남편과 남남처럼 행동하는 불안한 연극을 시작했지만, 낯선 남자

9)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67-68쪽.

10) 김승옥, 「야행(夜行)」, 『김승옥 소설전집1』, 1996, 272-273쪽.

의 강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일상의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즉 현주는 자신과 남편의 일상을 통해 ‘속임수’라고 하는 자기의 더러움을 보았고 자신의 위선의 일상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길 간절히 원한다. 그 간절함은 ‘이곳’이 더 나은 곳이 아닐지라도 단지, ‘이곳’이 아닌 곳으로 가기만을 원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주는 그 낯선 사내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낯선 남자는 단순히 불량배가 아니라 편안한 일상적 삶에 얽매어 진실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구원자이다. 그리고 강간이라는 사건 역시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속임수가 탄로 나게 된 긍정적 사건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이렇게 과편화된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현주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욕망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안다는 점에서 단순히 남성 주체의 타자가 아니라 그 자신, 인식과 판단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현주는 가끔, 자기가 뜨거운 8월 어느 날 우연히 한번 넘어서본 적이 있던 울타리를 넘고 싶다는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며 자신을 구원해줄 남자를 찾으러 밤거리로 나선다.

최근에 와서 그 여자의 욕구는 비틀거렸다.

그 여자는 자기의 욕구가 지나치게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걸 그 욕구의 싹이 자기의 내부를 자극하기 시작하던 처음부터 깨닫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여자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갖도록 해준 어떤 경험이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속에 한줄기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자각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되는 울타리를 감히 넘지시 넘도록 한 것이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결코 무모하지도 않으며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며 반사회적인 것도 아닐 수 있으리라.¹¹⁾

현주는 길거리에서 낯선 남자를 찾아 헤매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지나치게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주가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일탈을 과감히 시도하려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속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이 인간적인 욕구를 외면한 채, 윤리니 상식이니 하는 것들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나아가고 있는 일상의 허위의식과 속임수로부터 구원해준다는 생각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주의 성(性)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인식과 위선적인 현실을 탈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야행』에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여주인공 현주가 ‘울타리’를 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공포’와 ‘혼란’이라는 감정¹²⁾이다. 이 공포와 혼란은 처음 낯선 사내를 만났을 때 찾아온 것으로, 이는 현주를 창녀와 구분해 주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와서 그 여자의 욕구는 비틀거렸다. 이따금 그 여자는 그 공포와 혼란이 없이도 최근에 와서 사내의 손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곤 하였다. 창녀들처럼 아니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처럼.

그러나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그러한 의식(儀式)

11) 김승옥, 『야행』, 앞의 책, 266쪽.

12) 조남현은 『야행』을 ‘도덕적 상상력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현주가 울타리를 넘는 과정에서 느낀 ‘공포’와 ‘혼란’의 감정은 흔히 새로운 세계에 입사(入社)하려는 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윤리적 세계관에서 미적 세계관으로 막 접어들려는 순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조남현, 『미적 세계관에의 입사식』,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382쪽) 본고에서 ‘공포’와 ‘혼란’을 해석하는 방식 또한 도덕적 세계관이라기보다 미적 세계관에 있다.

으로써 포장하게 될까봐 하는 것이었다. 막연하나마 그 여자는 자기에게 공포와 혼란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 마침내 의식만이 남게 될 뿐이며 그리고 그것은 파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이었다.¹³⁾

『야행』에 있어서 ‘공포’와 ‘혼란’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포와 혼란은 현주가 낯선 사내를 만났던 날, 처음 느꼈던 감정이지만, 그 이후로 이 단편 소설이 끝날 때까지 여덟 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만큼 강조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김승옥이 강조한 이 혼란과 공포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주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당위성을 찾고 허술한 울타리를 넘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공포와 혼란이 없는 의식(儀式)만의 욕구는 창녀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파멸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볼 때 현주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구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 즉 일상의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현주의 인식은 곧 작가 김승옥의 당대 여성의 성적 삶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작가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욕구를 과감히 실현하려는 현주를 통해 한편으로 당대 여성에 대한 자유로운 성 담론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현주가 그 무모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울타리를 넘을 때 느끼는 ‘공포와 혼란’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창녀와는 다른, 여성의 성적 삶에 대해서 규제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3) 김승옥, 『야행』,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278-279쪽.

그리고 작가는 ‘모성’이라고 하는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의 형태를 가져와 성 담론의 의미들을 확대하고 강화한다.¹⁴⁾ 예컨대 현주는 밤거리에서 여자들에게 젖곳은 장난인 듯이 가장하고 있는 사내들에게서, 자기의 예정된 생활로부터 일상의 울타리 속에 갇힌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식하고 자기 쪽에서 먼저 팔을 내밀어 위로해주고 싶은 모성을 느낀다. 그리고 극장에서 본 뉴스영화에서 베트남전선으로 가는 군인들을 보며, 이제 겨우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게 될 나이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미군(美軍)식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에 하마터면 화면을 향하여 두 팔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싶은 모성을 느낀다. 그런데 이 때 현주가 밤거리의 사내들이나 베트남전선으로 가는 군인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쓸쓸함’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주는 그들의 쓸쓸함에 공감한다. 즉 자기의 일상과 예정된 생활로부터 도망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허위의 일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떠나야 하는 젊은 군인들은 다름 아닌, 속임수로 가득한 일상에 살고 있었던 현주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각한다. 따라서 김승옥이 『야행』에서 모성을 차용한 방식은 상실된 위협에 있는 여성의 성을 모성으로 감싸는 방식이 아니라, 모성의 시선을 통해서 타자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지배담론인 모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로 볼 때 현주의 모성성은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희생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모성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야행』에서 현주는 당대의 자유

14) 김미란은 모성이 당시의 지배 담론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던 여성의 덕목이라는 점에서, 지배 담론과의 차이를 유지하려는 작가의 전략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사실상 그것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한다.(김미란, 「국가 재건의 시대와 대도시를 배회하는 여성 산책자- 김승옥의『야행』(1969)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 2004, 461쪽.) 본고 역시 이 점을 일면 인정하면서도 지배 담론인 모성을 차용하면서 그 차이를 유지하려는 작가의 전략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로운 ‘성 담론’을 내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인물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자기 인식과 자기 규제를 가진 여성 주체이다. 그리고 또한 현주의 모성성이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유폐된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 지식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모성의 사회적 확장’이란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야행』에 나타난 여성 주체는 60년대의 성혁명이라 불리던 자유로운 ‘성 담론’과 ‘모성의 사회화’라고 하여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강조하던 ‘모성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3.2 성 담론과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된 여성 주체

『보통 여자』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통속성을 문제 삼으면서, “소설적 구성도, 작가의 비판의식도 없이 당대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보여주는 철저한 대중취향의 통속적 멜로드라마”¹⁵⁾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타락한 속물들을 그리는 통속적인 플롯”¹⁶⁾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평가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인물이 명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통여자』의 줄거리는 ‘보통여자’가 아니던 ‘수정’이가 ‘명훈’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서서히 ‘보통여자’로 변해간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제목인 ‘보통여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보통여자는 다름 아닌 ‘수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자들은 명훈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가 속물적 인간이라는 점과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을 중점

15) 조진기, 앞의 글, 74-75쪽.

16) 오윤호, 『지독히도 부끄러운 이방인의 기도』, 『작가세계』여름호, 2005. 6, 세계사, 35쪽.

적으로 분석하면서 당대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비판한다. 물론 이 작품이 주인공 수정과 명훈의 심리묘사를 대등한 지면을 통해 할애하고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명훈을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목이 글의 전체 주제를 압축한다는 상식적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역시 주인공은 ‘수정’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수정은 화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보통여자』에서 ‘수정’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바람둥이 남자 ‘명훈’과 한 달 전 결혼을 위해 선을 본 청순한 여자 ‘수정’은 명훈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인식하고 성적 주체로 서게 된다. 그런데 수정이 자신의 성적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성적 주체라는 점은 그 대척점에 놓여 있는 ‘종숙’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수정’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얼굴이 하얀 청순한 외모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해서, 종숙은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으로 서구적이고 발달된 육체를 가진 글래머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종숙은 스스로 드라마틱한 계교를 꾸며서 명훈을 유혹하고, 두 번째 만남부터 육체관계까지 허락한 개방적인 여성이다. 이런 종숙을 바람둥이 명훈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즉 서울 사회가 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미를 적당히 즐기기로 한 인간이라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 종숙 또한 “결혼 따위의 말을 입밖에 꺼내 명훈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로부터 도망가게 하느니보다는 남의 눈에 들키지만 앓는다면 다른 적당한 남편감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런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속물적인 인간이다. 이와 같이 『보통 여자』에서 명훈과 종숙이 속물적인 인간 군상으로 60년대의 자유로운 성 담론을 내재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면, 수정은 어머니 세대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생각하는 현모양처상의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수정의 어머니 김씨는 일부에서 맞벌이할 수 있는 여자를 아내나 며느리로 맞으려는 풍조가 높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자란 직장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거세지

고 여자다운 맛이 없어서서 결혼생활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수정의 취직도 반대하는 전통적인 여성이다. 그리고 수정이 역시 직업여성이 되기를 소원해 본 적도 없고, 단지 현숙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인생설계로 삼고 연애의 유혹도 매정하게 뿌리치는 태도에서 전통적인 현모양처 담론을 내재한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는 수정이 직장여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양가적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직장여성이 되기를 소원조차 해 본 적 없는 수정이 한편으로 직장여성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정은, 자기가 취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기도 했지만 할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했다. 〈…〉

지금, 다방에 앉아서, 명랑한 표정으로 애기의 꽃을 피우고 있는 직장여성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수정은 새삼스럽게 그 생각이 난다. 저 여자들은 본 처가 될 팔자, 난 첩이 될 팔자…… 명훈을 매일 차지하고 있는 건 저 여자들, 난 정해진 날짜에만 잠깐 만나고…… 종숙이란 여자도 아마 저런 여자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문득 든다. 그렇다고 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자꾸만 초라하게 움츠러들 뿐이다.¹⁷⁾

수정은 자신이 취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취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정이 직장인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는 태도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신의 열등감을 형성하는 데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직업에 대한 수정의 사고가 전통적인 어머니 세대와 차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수정의 어머니가 직업을 단지 ‘물질적인 도움’ 정도로 생각하는 데 비해서, 수정은 직업을 ‘능력’이라는 문제와 연관

17) 김승옥, 『보통 여자』,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5, 41-42쪽.

지어 생각한다. 따라서 ‘직장인 대 비직장인’, ‘우등생 대 열등생’, ‘본처 대 첩’이라는 대립적인 사고¹⁸⁾는 수정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고 급기야 자살할 결심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데 수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 바로 명훈과의 만남이고, 명훈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다. 수정은 명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과감히 던지는 성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나의 힘은 물론 그의 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일이라면, 중요한 건 그의 과거는 용서해버리고 그를 받아들일, 그를 향한 강한 사랑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

수정은 문득 눈을 반짝였다.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할 뻔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적으로 삼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싸운다……

그렇다. 지금 우리의 적은 그 여자다. <...>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명훈씨가 나와서 사랑을 위해 나와 합심해서 그 여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퇴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야.¹⁹⁾

이 여자에게서 ‘몸을 허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능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 일종의 사랑의 확인으로써 그 확인에 의하여 남자에 대한 모든 불신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며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히려는 것이며

18) 김영애는 등단작 『환상수첩』(1962)에서부터 김승옥의 작품세계를 관통해온 지배적 원리가 대립적 세계관이며, 이것이 후기 장편소설에서 ‘질서와 욕망’의 이분법으로 변주되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종숙과 수정이라는 두 여성인물에 대한 명훈의 대비적 인식에서, 수정은 질서로, 종숙은 욕망으로 인식된다고 한다.(김영애, 『김승옥 장편소설 연구-『보통여자』, 『강변부인』을 중심으로-, 『우리 어문 연구』 25집, 2005, 504-508쪽.) 그러나 수정은 질서로만 규정지을 수 없는 여성으로 질서와 욕망, 나아가 성 담론과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된 여성 주체이다

19) 김승옥, 『보통 여자』,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5, 114-115쪽.

나에게 과거와 같은 생활방식을 씻어주기를 요구하려는 게 아닐까?²⁰⁾

전통적인 인간상인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체화하며 살아온 수정이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던지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성적 주체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위의 두 번째 제시문에서 명훈의 독백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 부분은 수정의 성적 행위가 ‘단순히 육체적인 관능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사랑의 확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사랑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는 수정은 직장여성과 구별되어 서술되고 있다. 즉 『보통 여자』에서 작가는 종속이로 대표되는 직장여성을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거리의 여성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러나 수정은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욕망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직장여성과는 다른 성적 주체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수정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던질 결심을 한데 비해서, 바람둥이 명훈은 오히려 온전한 용서가 없는 육체적 관계와 결혼은 비극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설정이다. 이를 두고 명훈의 모랄리스트적인 면모가 작위적이며, 통속적 취향의 위장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수정의 성적 행위가 빚나간 경쟁의식에서 통속성의 극치를 보여준다²¹⁾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대의 현모양처 담론으로 성 담론의 위기를 봉합하려는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가재건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던 60년대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현모양처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가 본

20) 김승옥, 『보통 여자』, 앞의 책, 177쪽.

21) 조진기, 앞의 글, 77쪽.

격적인 산업화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새로운 성 담론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자각과 그것에 대한 실현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주체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는 ‘성 담론’과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가부장적 규범성을 여성들에게 제도화하는 ‘현모양처 담론’이 혼재되어 형상화되었다.

4. 「야행」과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의미

먼저 이 글의 서론에서 김승옥의 초기소설에서 보여주는 남성의 개인·주체·자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후기 소설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개인·주체·자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김승옥의 초기소설에서 ‘타자’였던 여성이 후기소설로 넘어오면서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된 동인(動因)은 무엇일까?

김승옥의 초기 소설은 근대라는 큰상징적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남성 주체의 ‘자기세계’에 대한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자기세계는 「생명 연습」의 형이나 한 교수처럼 자신만의 확립된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김승옥이 스스로 규정짓고 있는 ‘자기세계’ 또한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며 더욱이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라고 했다. 따라서 김승옥의 초기 소설에서 자기세계를 형성하고 사는 이들은 사람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자기의 확립된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진정한 만남이 없는 소통불능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승옥의 등단 작이면서 작가의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생명연습」은 타인과의 소통을 추

구하는 실마리 또한 보여주고 있다. 즉 『생명연습』에는 두 개의 의미망이 서로 교차한다. 하나는 한 교수나 형과 같이 ‘자기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누나와 같이 ‘사람의 다면성’에 대해 인정하고 타자의 삶을 그대로 포용하는 사람들의 부류이다. 작가는 이 두 부류를 ‘남성 대 여성’이라는 성(性)의 대립구조로 치환하고 후자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의 세계, 즉 타인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인물에 대한 지향은 『야행』이나 『보통 여자』에 등장하는 여성 주체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승된다.

한마디로 『야행』은 여성 주체가 산책자로 등장하여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소통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주체가 산책자로 등장하여 현대사회의 소통불능의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1964년 겨울』과 차이가 있다. 주인공 현주는 같은 직장에 자기 아내를 숨겨두고도 무표정한 얼굴로 잘도 꾸밀 수 있는 남편을 보고, 자신의 일상이 속임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현주는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보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과감히 실천하는’ 낯선 남자에게서 삶의 진정성을 느낀다. 그리고 허위와 속임수로 가득찬 일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통이 있는 인간관계를 찾고자 일탈을 결심하게 된다.

그런데 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야행』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현주의 시선이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허위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한 현주가 길거리 여급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많다는 사실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나, 현주가 밤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하는 사내들의 행위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이 도시로부터, 자기의 예정된 생활로부터, 자기가 싫증이 날 지경으로 잘 알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해보고 싶은’ 행위로 해석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손을 내밀려는 행위 또한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보통 여자』 또한 거짓된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진정한 소통이 있는 인간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수정은 명훈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명훈이 정숙이란 여자의 정체를 속이는 것은 속임수이며 이러한 속임수는 두 사람간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정은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과감히 던져버릴 결심을 한다. 명훈 또한 이러한 수정의 진심을 받아들여 과거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수정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설정은 그 행위의 작위성을 떠나서 수정이가 진심으로 원했던 진정한 소통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작가는 초기 소설에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던 남성 주체에 대한 관심을 『야행』과 『보통 여자』 등에서 타인과 세상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여성 주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에서 사회로 그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야행』과 『보통 여자』에 나타난 여성 주체는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일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진실한 인간관계와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김승옥의 70년대 각색 작업 또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1』, 문학동네, 1995.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4』, 문학동네, 1995.

2. 단행본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김승옥, 『뜨든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김승옥, 『내가 만난 하나님』, 작가, 2007.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 창작과비평사, 1978.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전집1』, 민음사, 1995.

3. 논문

김미란, 「국가 재건의 시대와 대도시를 배회하는 여성 산책자-김승옥의『야행』(1969)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 2004, 461쪽.

김영애, 「김승옥 장편소설 연구」, 『우리어문연구』 25, 2005, 500-508쪽.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가을호(통권8호), 삼인, 1999, 93-95쪽.

신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 30쪽.

여석기, 「새로운 성의 신화」, 『사상계』, 1960, 8, 232-237쪽.

오운호, 「지독히도 부끄러운 이방인의 기도」, 『작가세계』 여름호, 2005, 6, 세계사, 35쪽.

이동식, 「성욕=심리 현상의 동인」, 『사상계』, 1960, 8, 226-231쪽.

이만갑, 「성의 사회적 해조와 가치」, 『사상계』, 1960, 8, 218-225쪽.

이은영,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주체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0, 31-48쪽.

이철범, 「에로스의 반역」, 『여원』 11권 7호, 1965, 190-195쪽.

정현기, 「1960년대적 삶」, 『한국문학의 사회적 의미』, 문예출판사, 1986, 253쪽.

조남현, 「미적 세계관예의 입사식」,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382쪽.

조진기, 『불안한 감수성과 퇴폐적 일상- 김승옥 장편소설의 통속성을 중심으로』, 『작가연구』, 제6호, 새미, 1998, 61-62쪽.

Abstract

A Study on Women Subjectivity in Kim Sung-Ok's Novels

-Focusing on *Streetwalking at Night* and *Common Woman*-

Lee,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women subjects by analyzing *Streetwalking at Night* and *Common Woman* in which protagonists are women.

In Kim Sung-Ok's early works, women characters were described as should-be-discarded-beings in the course of the symbolic order of 'modernism' discourse by men subject's. Besides, they were depicted as others who cause cracks on the men subjects' consciousness constantly. But women characters in *Streetwalking at Night* and *Common Woman* are embodied as subjects who realize their own sexual identity. At the same time, they are subjects internalizing women discourse in 1960s.

For example, woman subject in *Streetwalking at Night* is mixed free 'sexual discourse' with 'maternity discourse'. The former is so called sex revolution in 1960s and the latter emphasizes women's social contribution. And woman subject in *Common Woman* is also mixed 'sexual discourse' with a good wife and wise mother discourse' which enforces patriarchal norms on women through modernization projec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three grounds, I concluded women subjects who have woman discourse of 1960s in *Streetwalking at Night* and *Common Woman* have a meaning that individuals enlarge their social interests. Finally, I suggest the three points for the above grounds. First, Women subjects in Kim Sung-Ok's early novels were others of men subjects. However, they really become subjects in *Streetwalking at Night* and *Common Woman*. Second, women subjects in the novels find their daily lives full of falsehood and hypocrisy. Third, they try to have a true relationship and

communicate with society.

Key words: woman subject, Streetwalking at Night, Common Woman, modernization project, woman discourse, sexual discourse, maternity discourse, good wife and wise mother discourse, mixed, social interest enlargement.

이은영

소속: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702-84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06-3번지

전화번호: 010-8564-5409

전자우편: wiselee12@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
--